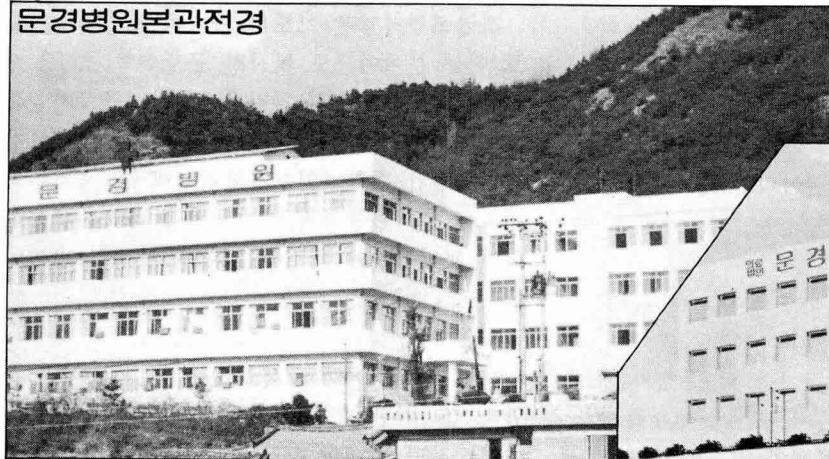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아서

문경병원

문경병원본관전경



소재지 : 경북 문경군 점촌읍 점촌 1리 402
이사장 : 류 종식
원장 : 김기승



1. 연혁

당 병원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1981.6.10 경북 문경군 점촌읍에 설립하여 국민의료시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료지역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폐쇄 직면에 처하게 되자 지역 사회 발전에 남달리 혼신적 노력을 해오신 류 종식 이사장께서 동 병원을 '84.4.2에 인수하여 경영의 쇄신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신념아래 X-선 컴퓨터 단층 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심폐기능 검사기등 최신의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85.12.24에는 광산지역 진폐근로자들에 대한 전문적 요양, 치료를 위해 별관(전평 1300평, 지하 1층, 지상 7층)을 신축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복지국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 병원에서는 이 지역 산업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1983년부터 산업 보건사업에 참여하여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업무를 병행하므로서 명실공히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건강관리 요람으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2. 특수건강진단 관할지역

○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 관내
영주시, 점촌시, 상주시, 문경군, 상주군, 영풍군, 봉화군

○ 노동부 안동출장소 관내
안동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3. 지역특성

당 병원 관할지역에는 총 1,110개 사업장에

31,829 명의 근로자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광산 및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문경 세재 구비구비 고갯길”이라는 이야기만 들어 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 산간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밀집되어 있는 사업환경을 가진 여타 기관에 비해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에 몇 배의 노력과 경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85년도 157개 사업장에 5,914명 실시한 것으로 보아도 1개 사업장에 약 40명꼴이라는 영세중소업체임을 알 수 있다.

4. 사업추진방향

○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

당 병원관내 특수검진대상자의 약 85%가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관계로 주로 진폐증 및 직업성 난청에 대한 질병발생의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진과 예방대책에 집중적 노력을 하여 지역내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 직업병 예방교육 강화

모든 질병은 본인이 지대한 관심과 예방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의 예방책인 바 이러

한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세미나, 건강교육 및 사업장 지도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로 산업보건 기술향상

산업보건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기타유해부서 근로자들에 대한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내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와 대학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책임검진제 확립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5. 인사말

지리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업장에 책임과 성의있는 독려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도를 높혀 지금까지 본원의 산업보건사업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와 안동출장소 소장님과 근로감독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들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협회소식

'86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 성황리 개최

○ 협회 '86년도 정기총회가 2.28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노동부 한전회 차관을 비롯하여 대의원 및 보건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결산 및 예산안과 정관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부의안건을 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 한편 총회전 개최된 특수검진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많은 검진기관과 보건관리자들이 참석하여 근로자 검진에 있어서의 기술 및 제도적 개선요구와 질의등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 반면 총회 폐막전에 가진 전체 토의시간에 많은 대의원들이 일반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 담당자의 역할 및 권리증대, 회원들에 대한 실무교육강화등을 강력추진하여 줄것을 접행부에 촉구하여 협회에서는 동문제를 금년도 중점연구사업으로着手할 방침이다.